

::특집-성경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 | 구약

## ○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

김성수 ≪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 구약학

치유에 관해서 교회가 주로 참고하는 본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가 기록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일 것이다. 하지만, 신약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치유의 기사들이나 치유에 대한 말씀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 구약성경은 현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치유의 전인적인 특성, 공동체와 세상의 치유 등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관련된 구약의 본문들은 치유가 가져다주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전 구약성경이 치유와 회복의 주제와 관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이러한 구약성경의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1. 구약성경에서의 치유의 의미

구약성경에서의 ‘치유’는 많은 경우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의

치유와 관계되어 있다. 하지만, 구약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의미는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개인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로 오염된 세상의 치유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들을 내포하고 있다.

‘치유’와 관련되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text{רפא}$ (라파)로서, 이 동사의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와 명사들은, ‘치유’가 갖는 다양한 차원들을 잘 보여 준다.<sup>1)</sup> 이 단어는 상처나 물건을 ‘고치다’, 혹은 ‘회복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상처 등을 ‘깨매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어근의 용례를 살펴보면, 불임, 상처, 질병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창 2:17; 레 13:18, 37; 민 12:13; 왕하 20:5; 시 6:2 등), 상한 마음의 치유(시 147:3),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깨어진 토기를 고침(왕상 18:30; 렘 19:11), 물과 땅 등의 창조계의 치유(왕하 2:21 이하; 겔 47:8 이하; 대하 7:14; 시 60:4), 백성들 혹은 공동체의 치유(사 19:22; 57:18; 호 11:3; 렘 33:6)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sup>2)</sup>

이상의 모든 예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치유’는 한마디로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 재앙, 도덕적 타락이 죄로 인한 창조 질서의 파괴라면, 건강, 평강, 의로움은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이다. 즉 구약에서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환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온전함’을 피조물들에게 가져다주시는 것”<sup>3)</sup>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세상에 의도

1) 이 어근은 구약성경에서 모두 90회 정도 등장한다. 동사 꼴로 70회, 명사형 [ $\text{רפוא}$ (마르페),  $\text{רפואה}$ (레푸아),  $\text{רפואות}$ (우트)]으로 20회 사용되고 있다.

2) H. J. Stoebe, “ $\text{רפא}$ ,  $\text{rp}$ ’ to heal,” i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3, ed.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trans. Mark E. Biddl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1254–1259.

3) Claus Westermann, “Salvation and Healing in the Community: the Old Testament Understanding,” trans. R. Wilkinso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61, no. 241(1972): 10, 18.

하신 행복과 복지를 주시는 길이며(살롬),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회복된 결과이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다.<sup>4)</sup>

한편, 구약의 치유 개념에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술적인 치료의 흔적은 없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라 믿어지던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술사들이 주문이나 마술을 사용하기도 했지만,<sup>5)</sup> 구약의 본문들은 그런 행위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구약성경은 기적적인 치유이든 자연적인 치유이든 모든 치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고백한다.<sup>6)</sup> 즉 하나님이 진정한 치유자 이시다. 구약에서 총 70번 등장하는 동사형 **שָׁפַט**(라파)의 용례에서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29회나 된다.<sup>7)</sup> 또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비유 중의 하나도 ‘치료자’ 비유이다(출 15:26).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혹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고 소개하신다. 또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시 147:3).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사 30:26; 렘 30:17; 33:6 참조). 왜냐하면 창조주요 구

4)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11-15.

5) 박미섭, “구약성경과 치유”, 『성서마당』 62호 (2003): 5.

6) Westermann, 12, 18.

7) H. J. Stoebe, 1255.

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과 살롬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5장 22-27절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서 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사흘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음이 판명하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 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치유한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소개하신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갖는 몇 가지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sup>8)</sup>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다(24-25절).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죄의 결과이든 아니든, 질병이나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창 20:17),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민 12:13), 불임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삼상 1:10-11), 죽은 아이를 살려 주시기를 구하는 엘리사의 기도(왕하 4:32-37), 죽을병을 고쳐 주시기를 구하는 히

---

8) 이 부분은 Terence E. Fretheim, *Exod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177-180에 잘 정리되어 있다.

스기야의 기도(사 38:16),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수많은 시편기자들의 목소리들(시 6:2; 30:2; 41:4 등)이 좋은 예들이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함으로써, 성전을 향한 기도가 용서와 치유의 길임을 제시한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모든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직접 고치시기보다는 자연에 있는 기존의 사물인 나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25절). 나무 자체는 단순히 순종의 상징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마라의 물을 해독하고 고치는 요소를 가졌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나무를 던지자 물이 치유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움으로 인도하신 사실이 더 기적적이다. 모세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 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치료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마름도 치유하셨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치료자로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직접 치유하셨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 창조 세계 내에 두신 치유적인 요소들을 인간이 발견하여 사용하도록 하신다(‘소금’을 넣어 물을 치유함-왕하 2:19-22; ‘가루’를 국에 넣어 해독을 함-왕하 4:39;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환처에 발라 치유함-왕하 20:7). 의사를 통한 치유를 암시하기도 하시고(렘 46:11; 51:8 등 참조), 청결한 생활에 대한 율법을 주심으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신다(레 13-14장). 물론, 초자연적인 치유이든 기존의 물질을 사용한 치유이든,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마라의 쓴 물이 치료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

신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신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26절; 신 7:15). 여기서 ‘질병’은 창조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신 질병과 재앙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열 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실 때에 물과 곤충들과 생물들과 하늘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의 치유는 자연의 치유이며, 자연의 치유는 인간의 치유로 이어진다. 그런 면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질서의 회복과 직결된다. 도덕적 질서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과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치료자로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겁주기보다는 그들이 질병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고 한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치유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계신 것이다.

‘질병’이나 ‘재앙’은 ‘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부터의 이탈이다.<sup>9)</sup> 구약에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과 세상의 건강과 행복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백성들이 도덕적 질서를 어겨서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 심판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거듭 거듭 치유의 능력으로 고통 가득한 상황으로 들어가신다(민 21:8-9; 시 41:4; 107:17-20; 147:3; 호 14:4; 사 53:5; 57:18-19). 심지어는 이 세상에 속한 이집트를 위해서까지(사 19:22).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느” 분이시다(시

9) Daniel J. Simundson, “Health and Healing in the Bible,” *Word & World* vol. 2, no. 4(1982): 331.

103:3).<sup>10)</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경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다. 치유의 전후 과정 전체는 하나님의 치유 활동에 대한 경험이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시 107:17-22).<sup>11)</sup>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치유를 경험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치료”<sup>12)</sup>를 발견할 수 있었다.

### 3. 치유의 대리자들: 의사(?)와 선지자

구약에서 치유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것은 의사나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들이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왕상 17:17-23), 엘리사는 수넵 여인의 불임을 치유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일사병으로 죽은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한다(왕하 4:8-37). 한편 엘리사는 길갈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끓인 국에 든 독을 해독해 주고(왕하 4:38-41), 이방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한다(왕하 5:1-15).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선지자들이 치유를 행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치유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이다(왕상 17:24; 왕하 5:17).

성경에는 의사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나오는 경우(창 50:1-14; 대하 16:12; 욥 13:4; 렘 8:22-9:6; 46:11; 51:8)에도 하나님의 치

10) Terence E. Fretheim, 180.

11) C. Westermann, 13-15, 18.

12) 존 H. 스택, 『구약신학』,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642.

료의 대행자로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의사에 의한 치료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기 문헌인 외경 시락서(집회서)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약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sup>13)</sup>

#### 4. 질병의 원인과 치유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환경이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이나 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창 3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무너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은 질병을 비롯한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창세기 3장,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피부병에 대한 규정들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피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사라나 한나 등이 죄로 인해서 불임에 시달렸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일사병으로 죽은 수벰 여인의 아들(왕하 4:18-20)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죽었다는 흔적도 없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는 타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고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이나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시내산 율법의 일부인 레위기 26장은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겪을 질병과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불순종의 40년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하신다. 불순종의 대가는 창조 질서의 역전이다. 즉, 전염병, 폐병, 열병,

13) Howard Clark Kee, "Medicine and Healing,"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ed. David Noel Freedman(New York: Doubleday, 1992), 660-661.



염증, 학질(21-22절),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눈꼽, 정신병(27-29, 35절)과 같은 온갖 질병들,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22-24절), 메뚜기 재앙(42절)과 같은 자연의 재앙들이다. 사리를 취한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린 재앙(창 20:1-18), 미리암의 나병(민 12:13-15),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징계(삼상 4:10-6:18),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삼하 24장), 여로보암 왕에게 임한 질병(왕상 13:1-25) 등은 모두 불순종이 원인이 된 질병과 재앙의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선지서들에는 질병과 상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호 5:13; 렘 30:13, 17; 33:6; 사 30:26; 렘 14:19; 15:18; 30:17; 사 19:22; 57:17 이하; 사 30:26; 렘 6:14; 겔 30:21; 34:4; 호 6:1; 애 2:13). 그것의 최종적인 모습은 앗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됨,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포로 됨이었다(렘 8:15,18,22; 10:19; 14:19; 15:18; 17:9; 30:12-13; 46:11).<sup>14)</sup>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치유 받을 길은 그 징계를 수행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렘 3:22).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질병이 왔다면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민 12:9 이하; 창 20:17; 시 103:3). 그래서 ‘여호와와의 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한다(사 53:5).<sup>15)</sup>

욥기 1-2장은 질병과 재앙의 또 다른 원인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탄이다. 의인 욥은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 무고히 엄청난 질병과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과는 다르다(외경 토빗 2:10; 11:8; 6:7; 8:1-3).<sup>16)</sup> 오히려 욥기는 죄의 결과도 아니고, 환경적인 이유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14) Howard Clark Kee, 660; H. J. Stoebe, 1257.

15) H. J. Stoebe, 1257.

16) Howard Clark Kee, 661.

시험의 일환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치유는 기도로도 일어나지 않는다(시 22:1-2; 고후 12:7-10).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달린 문제이며, 고통당하는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그 고통을 견디는 것뿐이다.

구약의 치유는 온전하지 않다. 세상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탄의 시험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치유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들(사 30:26; 53:5; 58:8; 렘 30:17; 33:6; 말 4:2)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6-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 5. 나가는 말

구약성경의 치유에 대한 관심은 결코 적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

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재앙이나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나 재앙을 당할 때 반드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비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기적적인 것이든,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모든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얻는 것을 뛰어넘는다. 그 치유 속에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질병과 고통조차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 김성수** 서울대학교(B.A.)와 고려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미국 Luther Seminary(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